

성명	최혁중	수험기간	2022.08~2025.07.(+군대)
학교	고려대학교	전공	지구환경과학과/ 전기전자공학부(이중전공)
키워드	삼시 민소1등 전체 3등 기득 0.22점 탈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2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최혁중입니다. 공부를 할 때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며 계획을 세웠는데데이제 제가 직접 합격 수기를 쓰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짧지 않았던 수험 생활을 거치며 배우고 느낀 점을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민사소송법 공부 방법을 중심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이 글이 수험생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석차
초시	92.5점	85점	65점	61등 / 3,312명
삼시	95점	90점	75점	84등 / 3,451명

-민법- <점수: 95점>

【강의 및 교재】

강의: 김동진 입문강의, 기본강의, 최신판례 특강

교재: 김동진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

【공부 방법】

민법을 처음 배울 때는 법리와 용어가 모두 낯설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강의를 들으며 용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입문 강의와 기본 강의의 진도에 맞춰 기본서를 병행해 읽었고, 분량이 많아 강의를 모두 들은 뒤 처음부터 다시 회독하면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당일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일주일 전 배웠던 파트의 기본서를 다시 읽으며 복습했습니다.

이후 강의를 완강하고 기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1회독은 ‘훑는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읽어 전체 흐름만 파악했고, 2회독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읽으면서 세부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회독할 때는 억지로 암기하려 하기보다 반복 회독을 통해 자연스럽게 암기되도록 했습니다.

3회독부터는 민법공방연습을 같이 풀었습니다. 기본서와 문제집의 진도는 약3일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소멸시효’에 대해 기본서를 읽었다면, 3일 뒤에 같은 주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습 효과가 있고, 머릿속에서 휘발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험 전까지 민법공방과 민법공방연습을 계속 회독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최신 판례 강의를 수강하고, 연도별 기출문제와 학원 모의고사도 풀었습니다. 민법은 최신 판례 문제가 항상 출제되므로, 최신 판례 강의는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 시험에서는 민법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지겹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기본서와 문제집을 꾸준히 반복해서 보는 것이 민법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0점>

【강의 및 교재】

- (1) 특허법
 - 1) 강의: 기본강의
 - 2) 교재: A 학원 기본서, 요약서, 기출문제집, 조문집
- (2) 상표법
 - 1) 강의: 기본강의
 - 2) 교재: B 학원 기본서, 요약서, 기출문제집, 조문집
- (3) 디자인보호법
 - 1) 강의: 김웅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최종정리강의
 - 2) 교재 : 김웅 WK 디자인보호법 조문핵심, 기출문제집

【공부방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개념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용어와 법리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강의를 모두 수강한 뒤에는 기본서를 읽어 전반적인 틀을 잡았고, 기본서로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요약서를 반복 회독하며 암기했습니다.

2차 시험과 달리 1차 시험은 객관식이므로, 문제를 풀 때 모든 선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보다는 정답을 가려낼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을 세워 공부했습니다.

특히 1차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조문 암기가 핵심입니다. 저는 조문을 읽을 때 주체(특허청장·심판장 등), 기간(예: 30일, 3개월), 재량/기속(‘할 수 있다’/‘해야 한다’) 등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를 빠짐없이 암기했습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5점>

【강의 및 교재】

- (1) 물리
 - 1) 강의: 수강 안함
 - 2) 교재 : C 학원 기본서, 문제집, 기출문제
- (2) 화학
 - 1) 강의: A 학원 기본강의, 문제풀이강의
 - 2) 교재: A 학원 기본서, 문제집, 기출문제
- (3) 생물
 - 1) 강의: A 학원 기본강의, C 학원 기본강의
 - 2) 교재: A 학원 기본서, C 학원 요약서, 기출문제
- (4) 지구과학
 - 1) 강의: 수강 안함
 - 2) 교재: A 학원 기본서, 문제집, 기출문제

【공부 방법】

자연과학은 해마다 출제 경향이 달라, 모든 과목을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고 한 과목 정도를 과감히 포기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어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6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물리·지구과학·생물은 전부 맞히고 화학은 절반만 맞히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중 제가 어렵다고 느낀 단원(예: 산-염기, 유기화학)은 아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II, 지구과학·II를 모두 공부했고, 대학에서도 일반물리학·일반지구과학을 수강해 기본 베이스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강의는 수강하지 않고 문제집을 풀며 공부했습니다.

화학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워하던 과목이어서 기본 강의를 들으며 개념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면서 시험에서 쉬운 문제는 반드시 맞히자는 마음가짐으로 대비했습니다.

생물은 문제집보다 기본서·요약서를 중심으로, 법 과목 공부하듯 회독을 많이 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단원 위주로 최대한 암기하고,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회독 빈도를 낮췄습니다.

자연과학은 개인별 강점과 선호 과목이 달라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차 시험의 과목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선택과 집중으로 자연과학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민법에 더 투자하는 편이 득점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석차
등차	-	-	-	-	-
기득	63점	49.66점	52.33점	100점	0.22점 탈
삼시	68.33점	53.33점	60.33점	99.66점	3등 / 1,116명

-민사소송법- <점수: 68.33점>

민사소송법

- 1문항 57
- 2문항 44
- 3문항 56
- 4문항 48

【강의 및 교재】

- (1) 강의: 이창한 기본강의, 사례강의, 심화강의
- (2) 교재: 이창한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이창한 기초, 실전A, 실전B / B학원 실전A, 실전B

【공부방법 서설】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할 때,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민법과 내용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달라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객관식과 서술형은 공부 방법이 전혀 달라서, 동차생들이2차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완강을 목표로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특히 이공계 학생에게 생소한 분야라, 강의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해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완강한 뒤 기본서를 천천히 읽으며 스스로 이해를 다져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본서를 3회독하고 나면 기판력, 참가승계, 인낙 등 용어가 익숙해지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 학문인지 감이 옵니다. 이 시점부터는 사례 강의를 병행하며 문제를 읽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개념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 강의를 듣는 것이 맞는지 고민도 되었지만, 사례를 통해 기본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시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본서를 회독할 때 앞뒤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문제를 읽고 논점을 추출하고 논리적인 목차를 구성한 다음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사례집을 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사례강의를 수강하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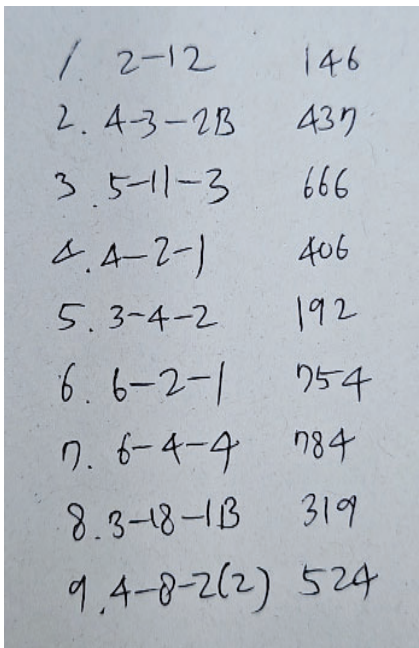
【기본적인 공부 루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시기별 공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기본서로 이해 후 암기를 하고, 사례집으로 그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본서 암기에 보내고 사례집을 통해서 ‘목차 잡기’ 연습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기본서는 수험 기간 내내 매일 회독했고, 사례집은 같은 책을 30회 이상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례집 활용】 ★★★

사례집을 푸는 목적은 문제를 읽고 논점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례집을 여러 번 풀다 보면 문제의 첫 줄만 읽어도 논점이 떠오르거나, 책의 위치(예: 앞쪽이면 관할·당사자 확정, 뒤쪽이면 소의 병합·재심 등)로 대략 추측하게 되거나, 문제 번호 옆 제목(예: “5-10-A 선정당사자”) 때문에 논점 스포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원과 문제만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순서를 섞은 뒤, 하루치 분량의 문제집을 만들어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마지막 장에는 다음 사진과 같이 문제 번호와 페이지를 함께 적어주었습니다.



하루치 문제집 풀면서 직접 목차를 잡은 다음, 책과 비교하여 논점이 누락되었거나 결론이 틀렸다면 별도로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풀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논점 추출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꾸준히 문제를 풀게 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기의 정도】

저는 통합에 실린 대부분의 내용을 외웠고, 판례나 학설을 암기할 때도 키워드뿐만 아니라 조사까지 그대로 암기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판례를 많이 접하시므로 구어체보다는 판례 원문을 그대로 적는 편이 더 읽기 쉽다고 판단해 원문을 그대로 암기했습니다.

다만 주변 스터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처럼 과도하게 세부 표현까지 외우지 않고도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암기하더라도 합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 회독】★★

시험 직전에 통합 전 범위를1회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일주일 전에 시험 전날 읽을 부분만 따로 정해 표시해 두었습니다. GS에 출제된 내용, A급 논점,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본 내용 등을 중심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1일차 시험을 보고 나서 그 표시한 부분만 빠르게 읽었고 읽으면서 시험 당일에 볼 부분도 다시 표시해 두었습니다.

- ☐ F41-1~2@@(과거 법률관계확인)
- ☐ F44@@(유치권부존재확인)
- ☐ F47~50A
- ☐ F51@(제3자 권리 부존재확인)
- ☐ F54@@(저당권말소+채무부존재확인)
- ☐ F73
- ☐ G13
- ☐ G23@@
- ☐ H15@@(부정명령 항고가부)
- ☐ H18@@(각하명령성립 후 보정 가부)
- ☐ H36~38@@
- ☐ H44
- ☐ H45
- ☐ H46
- ☐ H49-1@(대위소송,추심소송,인수승계 시효중단)
- ☐ I03-1@(채무자의 소 취하 후 대위소송 적격회복)
- ☐ I11-1@(추심소송 기판력 다른 채권자)
- ☐ J31-2@@(연대지급청구에 개별지급판결)
- ☐ J33@@(건물철거청구 대금지급상환 건물인도청구 포함)
- ☐ J34~35
- ☐ J36@@(임시지급청구에 정지금판결 가부)
- ☐ J43@@(응소행위 시효중단)
- ☐ J56
- ☐ J62
- ☐ J90@(지적의무 소송요건)
- ☐ J95-3~7@(지적의무 예시들)
- ☐ K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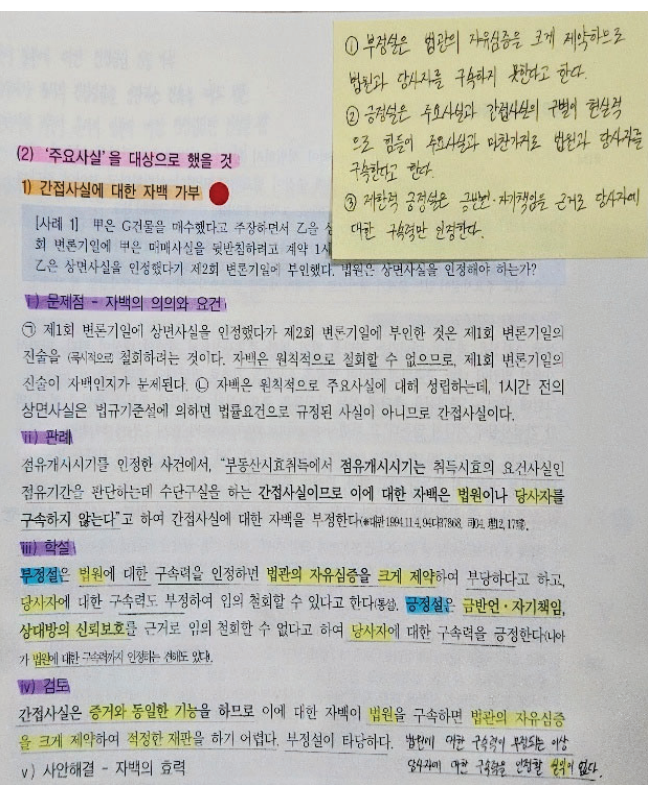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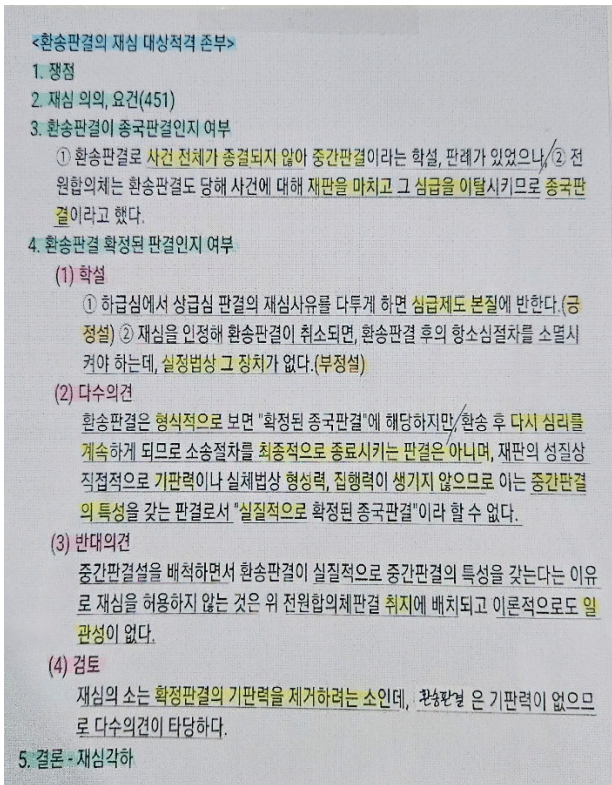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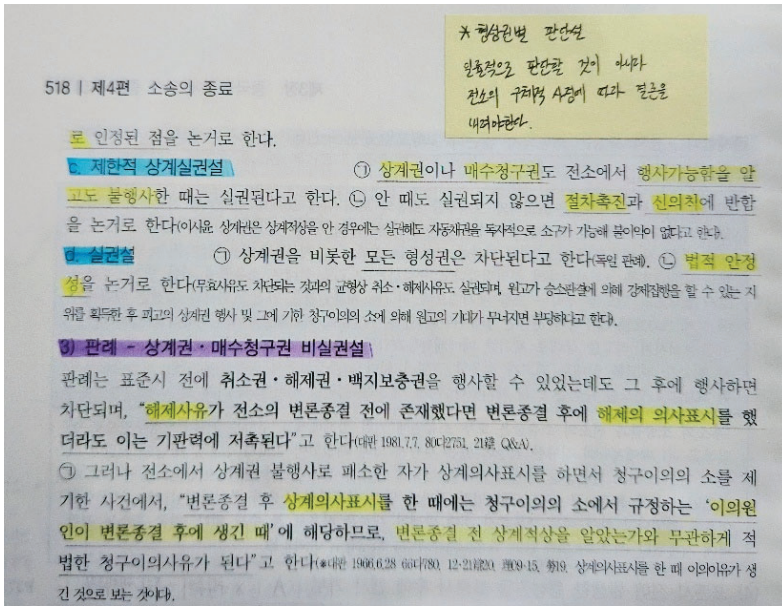
【고득점 비결】★★★★★

(1) GS 활용

많은 분들이GS에서 출제된 논점을 기본서에 스티커로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스티커를 붙였지만, ‘GS에 나왔으니 중요하니 다시 보자’가 아니라 오히려GS에 나오지 않은 논점을 확인하기 위해 붙였습니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당해 연도 학원GS에 나온 논점은 제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6월에 모든GS가 증강한 뒤, A+ 논점 중GS에 출제되지 않은 논점들은 판례 원문을 찾아 읽고, 교수 저서·주석서·논문 등을 통해 기본서에 없는 학설이나 그 근거를 보완해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또한GS에 출제된 논점이라도 제가 보기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형성권 실권효’ 문제에는 전원열 교수님의 ‘형성권별 판단설’을 추가로 기재했고, 처분권주의(건매청) 문제에서도 학설의 근거를 보강해 적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추가 득점을 위한 보완 전략일 뿐이므로, 평소에는 기본서와 사례집 위주로 공부하고 교수 저서·논문 등을 과도하게 찾아보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강약 조절

기득 때는 암기를 열심히 했고, 그렇게 외운 내용을 답안지에 쓰지 않으면 아깝다는 생각에 필적을 높여 관련 내용을 모두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논점별로 점수가 계산되는 GS에서는 늘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은 GS처럼 채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삼시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삼시 때는 같은 논점이라도 배점에 따라 분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미리 고민했습니다. GS에서 늘 15점으로 다루던 논점이 실제 시험에서는 10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분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음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열심히 외운 내용이라도 욕심을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간략히만 적거나 과감히 생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 1-1 문제에서 처분권주의와 적극적 석명이 함께 출제되었는데, 두 논점의 학·판·검을 모두 쓰면 10점 분량(2페이지)을 무조건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 논점인 처분권주의는 자세히, 부 논점인 적극적 석명은 학설을 요약하고 타깃 판례만 기재해 분량을 조절했습니다. 처분권주의를 주 논점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문제에서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검토하시오.”가 아니라 “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라고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점수: 53.33점>

【강의 및 교재】

- (1) 강의: 박형준 기본강의, 사례강의, 판례강의/ A학원 최종정리강의
- (2) 교재: 박형준 준특허mini, 사례집, 판례집/ A학원 최종정리자료

【수강한 GS】

박형준 실전A, B / A학원 실전A

【공부방법(기득)】

저의 특허법 공부 방식은 다른 합격자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며1차 때 어렵듯이 알던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했고, 판례 강의로는 해당 판례가 설치된 배경과 판사님의 사안 해결 논리를 익혔으며, 사례 강의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습니다.

판례집과 사례집은GS 비시즌(3월 이전)에 미리 공부하며GS 시즌에 다시 볼 부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GS 시즌(3월 이후)에는 표시한 부분만 복습했고,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서GS를 통해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했습니다.

GS를 풀 때는 특허와 상표 과목에 한해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자주 놓치는 논점이나 ‘트리거’ 문구 등 실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GS를 풀 당일 바로 복습하며 정리했고, 식사 시간이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틈틈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상표법- <점수: 60.33점>

【강의 및 교재】

- (1) 강의: B학원 기본강의
- (2) 교재: B학원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A학원 판례요약서

【수강한 GS】

한경훈 실전A,B(기득기간) / A 학원 실전A, 실전

【공부 방법】

상표법은 특허법과 유사하지만, 특허법보다 판례 중심 학습의 비중이 더 큽니다. 저는 기본서는 암기할 때만 활용하고, 주로 판례집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때 ‘이런 상표가 나오면 이 판례를 쓰자’에서 그치지 않고 판사님의 사안 포섭을 따라가며 실제 답안에서 어떻게 사안 포섭을 해야 하는지 연습했습니다. 상표는 사안 포섭도 판례처럼 틀을 암기해 두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판례처럼 조사까지 동일하게 외우긴 어렵더라도, 판례가 제시한 요건을 실제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는 암기해 두면 시험장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완성도 높은 사안 포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부 결정 기준’ 판례에서 언급된 ‘주강비상식결품거’의 요소를 어떻게 판단하면서 요부를 결정하는지 판단과정을 암기를 했습니다.

또한 상표는 이른바 ‘답안지학’의 적용 비중이 가장 큰 과목이라고 느꼈습니다. ‘답안지학’은 수험계에서 변리사2차의 ‘다섯 번째 과목’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목차 구성, 사안 포섭 방법, 판례 라벨링, 들어쓰기, 사안과 결론의 분리 제시 등 고득점에 필요한 요소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더 자세히 쓰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득과 삼시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답안지학’을 얼마나 체화했느냐였습니다. 상표 공부를 할 때는 다른 과목보다 답안지학을 신경 쓰면서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써야 고득점을 받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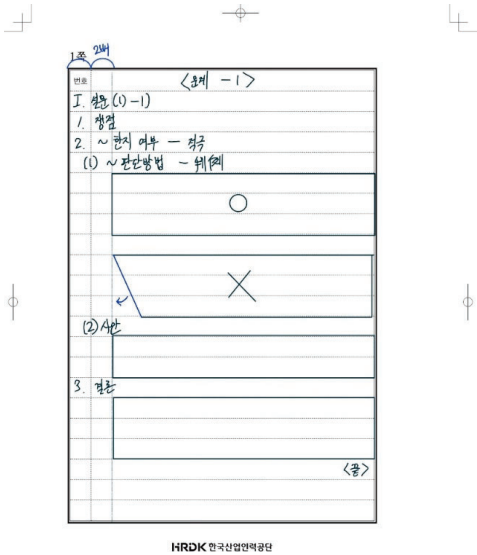
-답안지학-

【답안지 기본 목차】

<문제 - 1> 1. 설문(1)-1 1. 쟁점 2. A 논점 (1) 문제점 (2) 학설 - 학설을 작성하고 괄호에 학설 명칭 기재 ①~~~~~ (긍정설) ②~~~~~ (부정설) (3) 判例 (4) 검토 (5) 사안 3. 결론
--

【답안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1) 들여쓰기 : 목차와 본문을 들여쓰기로 명확히 구분해, 교수님께서 목차만 보셔도 어떤 내용을 썼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답안지를 작성할 때 항상 목차는 들여쓰지 않고, 내용은 맨 왼쪽 세로선 칸만큼 들여썼습니다.



(2) 적극/ 소극(특허, 상표 한정) : “~한지 여부” 목차 옆에 적극/ 소극을 써주는 것이 채점할 때 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써주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쓰지 않았고 특허랑 상표만 써주었습니다.

(3) 줄바꿈: 기득때는 사안포섭을 할 때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바로 옆에 붙여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삼시때 글씨가 안 좋은 사람이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그냥 붙여서 쓰면 내용의 반전이 있음에도 채점자가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답안지를 크게 크게 써도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사안포섭을 할 때 내용의 반전이 있거나 반전까지는 아니어도 줄을 바꿔쓰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줄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에서 청구항 해석 방법에 대한 사안포섭을 할 때, 아래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1) 기득

①권리범위 판단에 있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A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다만~하다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으면 a로 제한해석할 수 있다. ③따라서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삼시

①권리범위 판단에 있어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A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다만~하다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으면a로 제한해석할 수 있다.

③따라서 권리범위에 속한다.

(4) 법조문 숫자만 기재: 법조문을 기재할 때 ‘제1조’, ‘1조’, ‘§1’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숫자만 기재하는 것이 가장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글씨가 예쁘다면 ‘조’를 같이 써주는 것이 좋겠지만 저처럼 악필이신 분들은 괄호를 활용해서 숫자만 기재하는 것이 채점할 때 법조문을 썼구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쓸 때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①)”고 작성하여 괄호 사이에 여백을 두어 숫자가 강조되도록 했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방법】

(1) 판례 라벨링(특히, 상표 한정) : 기득 때까지만 해도 판례를 쓸 때 목차에 ‘判例’만 적었습니다. 판례만 쓰면 득점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목차에 어떤 판례인지까지 쓰면 시간이 더 들고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틀렸고 특허·상표의 경우에는 어떤 판례인지 정확히 밝혀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긴 판례는 문장마다 담긴 취지가 달라, 이를 문장 단위로 나누어 목차에 표시하면 ‘어떤 내용의 판례를 썼는지’를 교수님이 목차만 보고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더라도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기득 때는 다섯 글자라도 아끼려고 ‘판단 방법-判例’만 적었지만, 삼시 때는 ‘부정한 목적 판단 방법-判例’처럼 구체적으로 라벨링해 어떤 판례를 쓰는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 | |
|-------------------------|
| 1. 34조1항13호 해당여부 - 적극 |
| (1) 34조1항13호 의미, 취지, 요건 |
| (2) A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
| 1) 부정한 목적 판단방법 - 判例 |
| 2) 사안 |
| (3) 소결 |

(2) 마무리는 결론이라는 목차: “사안 포섭”과 “결론”에 각각 배점이 들어간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의 마무리 는 위에서 사안포섭을 했더라도 ‘결론’ 목차를 따로 두어 최종 답을 적었습니다. 심지어 단문 문제도 결론을 적어주었습니다.

(3) 목차를 구체적으로 작성: ‘판례 라벨링’과 같은 맥락으로 목차를 작성할 때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포함시켜서 목차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백화점식 답안이 아닌 문제를 해결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 유사여부-적극’가 아닌 ‘A상표와B상표의 유사여부-적극’으로 작성했습니다.

(4) 법조문 필수: 법조문은 답안에 정확히 작성했을 때 교수님께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세 분의 교수님이 채점하시면 답안 내용의 경우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달라서 득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법조문의 경우 명확히 적어 두었다면(채점 기준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세 분 모두 일관되게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큼니다.

(5) 사안포섭시 사실관계 적용: 사안포섭을 할 때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 주체(갑, 을 병 등), 날짜, 등록상표A, B, 제시된 상표의 특징(GLIATAMIN 등) 등을 답안지에 현출해주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용한 펜, 스텝위치】

제트스트림 펜대+ 엔젤그립+ 사라사0.7 / 드레텍 스태프위치T-606

-기타-

【시험 꿀팁】

1. 시간 관리: 평소GS를 풀 때 “1시간짜리 시험을 연속 두 번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2번까지 풀었을 때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연습했습니다. 36분/24분 규칙은GS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문제 풀이 순서 변경: 시험장에서 ‘짱돌’ 같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시간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평소GS에서도 그런 문제가 보이면5점당 한 페이지로 계산해 답안지를 비워 두고 다음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민소 3-3을 읽고 논점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2페이지를 비워 두고4-1부터 풀었고, 다 풀 뒤에3-3을 해결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남은 시간을 오로지 당황스러운 문제 해결에 쓸 수 있어 안정감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기득 때와 삼시 때의 차이점】 ★★★★★

1. 답안지학(전술)
2. 스티커를 활용한 추가학습(전술)
3. 분량조절(=욕심 버리기) : ‘5점당1페이지’ 원칙을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려면 주 논점과 부 논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 논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부 논점은 짧게만 언급해야 합니다. 아는 내용을 모두 적는 사람보다 주 논점과 부 논점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배점에 따라 부 논점을 생략하거나 줄처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득 때는 남들보다 추가 점수를 받겠다는 욕심에 관련 내용을 모두 적었지만, 삼시 때는 출제 의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알고 있어도 쓰지 않고 주 논점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4. 사소한 법조문도 암기: 법조문의 중요성은 앞서 언급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민법 조문도 자주 쓰이는 것은 암기했고, 민사소송법의 경우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조문까지도 암기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4-1의 ‘변론 종결 뒤 승계인’ 판단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에 ‘민법 제451조’를 함께 언급했고, 4-2에서는 항소 기간 도과로 항소 각하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제413조’를 적었습니다. 이런 조문들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니더라도, 답안에 함께 언급해 두면 전반적인 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시간】

평균적으로 하루10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수험 초기에는 열정이 앞서12시간 이상 공부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루10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는 저녁 식사 전까지만 공부하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운동은 따로 안 했고, 가끔 허리가 아플 때 자기 전에 폼롤러로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수험 생활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수험 생활이 길어지며 우울한 날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스태디원들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공부 장소】

학교 안에 도서관이 여러 개 있어서 기분에 따라 장소를 바꿔 가며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출책 스터디, 도서관 탈주 방지 스터디, 쓰기 스터디, 삼시 정보 공유 스터디, 민소 문제풀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월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 강의와 통합기본서를 추천합니다. 이창한 강사님의 강의력이 좋으셔서 법을 처음 접하는 이공계 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자주 반복해 주셔서 강의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암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통합기본서는 다른 강사님들의 교재보다 두꺼워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회독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읽어 금방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집과 기본서의 연계가 잘되어 있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긴 수험 생활 동안 제 곁을 지켜 준 가족들과 많은 친구들, 선후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분 한 분 성함을 언급하며 인사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 여기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칠 때마다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누나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수험생활을 함께해 준 모든 스터디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곁에서 함께 공부하며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해 헤맬 때마다 따뜻한 조언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이창한 강사님, 박형준 변리사님, 한경훈 변리사님, 그 밖의 많은 강사님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김민동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합격은 제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 걸어 준 모든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더해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변리사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jo__ong으로DM 주시거나 steve1771@korea.ac.kr로 메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